

지역 소식통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완주군에 농기계 지원 협력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가 완주군에 농기계사업비 일부를 지원했다.

완주군은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소농, 고령농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사업 일환 중소형농업기계지원 사업비 1억원을 전달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완주군은 올해 3월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억원(군비 2억, 자부담 2억)을 투입해 관리기 등 5종 154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역협력 사업으로 지원될 중소형농업기계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세척기, 관리기 등 3기종으로 완주군은 농번기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중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사업 중소형농업기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290-3279)에 연락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청원초 주변 경관정비 마무리

완주군이 과화산업단지 내 청원초등학교 주변 경관정비를 마무리해 인근 근로자,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청원초등학교 도로변과 산책로에 개나리와 배롱나무를 식재해 경관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잡목과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등 전기 작업을 실시해 등산로를 시작으로 청원초등학교, 센트럴카운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정비했다.

군은 이번 경관 정비로 시작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주민들이 산업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명완 소장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아름답고 안전한 산책로를 만드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협약

김제시-전북새만금학융합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스타트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김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김제시와 융합원은 지역 현안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김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업무를 공동 수행하게 된다.

공모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김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는 현재 김산동(금성로 145) 소재에 별도 사무실을 구축동과 기업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취업연계팀은 채용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발굴 등을 관리·운영, 사업지원팀은 기업지원팀과 취업연계팀을 지원하며 일부 세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신규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중장기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며, 김제시는 5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새로운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지역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의 위기와 제조업 위기, 실업자 증가 등 일자리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제시는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완주군과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장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모를 준비한 결과 지난 4월 27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공모사업 준비단계부터 선정 시까지 김제시를 위해 발로 뛰며 몰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새만금산학융합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최근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가 다시금 위축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김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발판삼아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생강, 주민과 함께 관리한다

완주군 -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 자율관리 협약 체결식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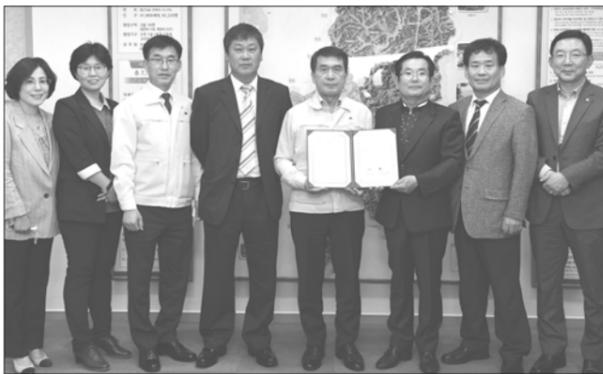
완주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군은 20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인 (사)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대표 이용국)와 자율관리협약을 맺었다.

이번 자율관리협약은 완주군의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함에 있어 완주군과 주민들과 함께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완주군은 주민협의체인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는 전통농업법에 대한 주민교육, 벤치마킹, 주민시범재배지 및 완주생강 경관농업 조성지 공동경작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식과 함께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정철우)가 열려 조정, 생태, 민속학, 문화예술, 법률 분야별 전문가 등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농업유산자문위원회는 농업유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완주생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농업유산등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철

우 부군수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유산 자문위원회를 통해 완주의 농업유산 정책과 방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전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 협약... 6월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

김제시는 20일 전북은행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기초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박준배 시장과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와 전북은행은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제시는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이번 주 시의회와의 협조체제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84억여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급대상은 조례 공포일(5월말예정)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전월말 기준으로는 42,005세대, 83,725명이다. 지급 수단은 69세 이하의 시민은 전북은행에서 발행한 선불카드, 70세 이상은 김제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6월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세대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배부되는 '선불카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 카드로, 김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빠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업인협의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일 시청 상 황실에서 김제시 기업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고용유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제시기업인협의회, 지정산산업단지, 순동산업단지, 백구특장차단지 등 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 대표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규모 감소와 내수시장 불황에 따른 자금 운영 애로 등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관내 우수기업제품 우선 구매, 인력 공급 등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제시는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기업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은 고용 유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코로나 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폐쇄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산업단지내 근로자의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문승 김제시 기업인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에서도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정신질환자 온라인 재활 프로그램 개강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 연기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센터 등록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슬기로운 마음 챙김" 온라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록회원들에게 이번 온라인 재활프로그램 참여 과정이 일상생활 속 변화와 어려움(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슬기로운 마음 챙김)은 등록회원들이 가정에서 올바르게 마음을 북돋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약물관리교육,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체운동 및 관리법 교육, 색채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 이해와 감정표현의 기회 제공 및 정서적 안정을 할 수 있는 색채치료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